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408차 정기 수요시위

주 최 : 정의기억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 관 : 메모리아

일 시 : 2019년 10월 09일(수) 12시

장 소 : 서울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순서>

*사회: 정보영 (메모리아)

- 여는 노래 < 바위처럼 > 경기역사교육실천연구회
- 주관단체 소개와 인사말 메모리아 민은서 회장
- 경과보고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
- 공연 시사낭만청춘극단 '끼' (시낭송)
..... 여대연합 사회참여 노래동아리 '늘해랑' 나빌레라 팀 (합)
- 참가단체 소개 및 자유발언
- 공연 세상과 함께 추는 춤 '흥' (울동)
- 성명서 낭독 메모리아 회장 민은서
- 퍼포먼스

《 바위처럼 》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 바위처럼 살자구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 뿌리가 얇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 굳세게도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구나

《 주관단체 소개 》

□ 세상을 바꾸는 #with you <메모리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에게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민은서 010-2232-7847

제140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1992년 처음 시작된 수요시위는 벌써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이 긴 시간 동안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국과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법적배상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매춘부라 모욕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다시 한 번 폭력을 가하고 있다.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꿈꾸는 아베 정권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자위대라는 이름의 군대를 양성하며 세계 7위의 군사력을 가진 것. 전범자들을 향해 신사 참배를 하는 것. 내년에 개최될 도쿄올림픽에서 전범기를 허용하는 것이 그 근거이다. 지난날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또다시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일본정부는 양심을 가진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에는 아베와 같은 일본의 극우세력들을 옹호하며 '친일은 애국이다'를 외치는 보수적폐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날강도식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추진하였다. 게다가 지금 반일운동이라는 국내 정세에 반하여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일본의 극우세력들을 지지하는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친일적폐세력들은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답습하며 철저히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들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에 빌붙어 과거사청산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극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들의 아픔을 공개하며 용기를 내셨던 할머니들의 마음을 받아 이제는 우리가 연대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때이다. 잘못된 한일관계를 바로잡고 친일적폐세력들을 청산해 무분별한 역사왜곡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것이 할머니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며 일본군 성노예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앞당기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전쟁과 폭력과 혐오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이행하라!

하나, 침략전쟁 반성 없이 군국주의 부활시키는 아베정부를 규탄한다!

하나, 친일적폐세력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

2019년 10월 9일 제140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메모리아 일동

손판임 할머니 (1924.10.12.-2006.10.6.)



손판임 할머니는 1924년 경남 하동에서 다섯 남매 중 외동딸로 태어나셨습니다. 만으로 열일곱 살 때 좋은 직장이 있다며 접근한 일본 여자와 남자에게 끌려가 부산에서 배를 타고 남양군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라바울 위안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이후 뉴기니아, 보르네오, 필리핀으로 끌려다니며 끔찍한 생활을 계속하다 스물한 살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199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시고 나눔의 집에 기거하시며 수요시위 참석 등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나는 1924년 음력 10월 12일 경남 하동에서 다섯 남매 중 외동딸로 태어났다.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고, 아래로 남동생 셋이 있었다. 우리집은 본래 하동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과수원을 하기 위해 진주 봉래동으로 이사를 했다. 아버지는 진주에서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했다. 우리집은 초가집이기는 해도 사랑채에 방이 두 칸, 마루가 달린 안채에 방이 세 칸, 그리고 아래채라 하는 곡간이 하나 있는 꽤 넓은 집으로, 그렇게 잘살지는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고생하면서 크진 않았다. 땅도 많아서, 가을이면 소작인들이 농사지은 것을 집으로 가져오곤 하였다. 일본놈들이 다 공출해 갔지만...”

“처음으로 집을 떠난 것은 내가 만으로 열일곱 살이었던 1941년이다. ... 어느 날 40대쯤 되어 보이는 일본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서 아버지께 좋은 직장이 있으니 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애엄마가 아플 뿐 아니라 또 어린애를 어떻게 멀리 보낼 수 있느냐며 한사코 안 된다고 하셨다. 여자는 잠시 나가더니 누런 전투모를 쓴 일본인 남자를 데리고 왔다. 구렛나루 수염이 난 오십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이 사람은 내가 부산에서 배를 탈 때도 보았고, 라바울, 보르네오, 뉴기니아를 전전할 때도 여러 번 보았다.”

“그가 내게 한 번 나와보라고 하더니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걱정이 되신 아버지가 따라 나오시면서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고 하니, 우찌다 상은 어디 나쁜 데 데려가지 않으니깐 괜찮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밀쳐버렸다. 지금도 아버지가 뒤로 주저앉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후 우리는 오래 기차를 달려서 히로시마로 갔다. 거기서도 여관에서 며칠 있다가 항구에 나오니 배들이 꽉 차 있었다. 우리는 어느 창고 같은 데서 주먹밥과 보리차를 먹고 오후 늦게 출발하였다. 이제 진짜 목적지로 간다고 해서 불안하게 서 있던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린다. 배를 탈 때 우리들은 손은 모두 밧줄에 한 줄로 묶여 있었고, 가슴에다 이름표를 붙이고 있었다. ‘가스마’, ‘마리코’. 내 이름은 ‘마츠모토 가요코’였다.”



“거기는 열대지방이라 말라리아가 많이 걸렸다. 그 병으로 네 명인가가 죽는 것을 보았다. 진짜 무서운 병이었다. 나는 거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약해서 그 병으로 자주 누워 있곤 했다. 그게 한 번 걸리면 스무 날씩 혹은 한 달씩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려야 했다. 때로는 일부러 앓는 시늉을 한 적도 많았다. 일부러 굶으면서 아프다고 2~3일씩 드러누워서 꼬를 부리는 것이다. 그래서 구니모토가 날 제일 미워했다.”

“거기는 무척 위험한 지역이었다. ‘공습이요!’ 하면 차가 군인들을 막 싣고 달아났는데, 비행기 소리를 하도 들으니까 소리를 들으면 어느 나라 비행기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일본군 비행기는 가벼운 소리가 나고 미군 비행기는 무거운 소리가 났다. 군인들은 우리가 미처 달아나지 못한 채로 급하게 비행기가 날아오면 위에다 이불을 깔고 방구들 밑으로 들어가서 엎드리라고 했다. 비행기가 강 위로 갑자기 날아와서 빗발치듯 공습을 하면 같이 있던 군인들도 다 그 밑에 궁둥이를 내놓고 머리만 처박고 있었다. 하하. 세상에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았다.

“한 달 후 우리는 부대에서 떠나 다시 기차에 실려 2~3시간을 달려서 어느 허허벌판에 있는 육군아전병원을 갔다. 병원장은 우리를 집합시켜 놓고 그 병원에서 3개월만 있으면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에 돌아온 후에야 안 일이지만, 당시 미군이 그 섬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만약 우리들의 신분이 탄로나면 일본의 체면이 깎일 것이라고 염려해서 우리를 간호원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임시간호원 옷을 입고 모자도 쓰고 마크도 붙였다.”

“그러니까 내가 스물한 살 되던 해(1946년)에 진주로 돌아온 것이다. 집에서는 형제들이고 집안 어른들이고 모두 내가 죽은 줄만 알았다고 한다. 이모들이 가서 점을 치면 어떤 데서는 내가 죽었다고 하고, 어떤 데서는 살아 있지만 배고파서 울고 다닌다고 했단다. 그러던 내가 살아 왔으니 오죽하겠는가? 아버니는 내가 떠난 뒤로 환병이 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어느 겨울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서른여섯에 집을 나와서 그 길로 서울에 와 가지고 20~30년 동안 혼자서 안 해본 게 없다. 미아리, 천호동, 과천을 전전하면서 시장에서 가판대를 놓고 장사도 하고 공장에 밥을 지어 나르기도 하고 비단짜는 공장, 카시밀론 솜타는 공장, 통조림 공장, 실배는 공장 등에서 일을 했다.”

“일본이 우리들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 일본정부는 진상을 규명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지금도 증언을 하노라면 속이 뒤집히고 성질이 난다.”

-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들 2



손판임 할머니의 삶을 기억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